**데이비드 터너 박사, 마태복음
강의 5A – 마태복음 10장: 이스라엘 선교, 두 번째 담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데이비드 터너입니다. 마태복음 5A 강의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두 번째 설교, 선교 설교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지시를 내리시고, 파송하십니다.

물론 산상수훈이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신중하게 골라 제자 훈련 이야기와 함께 엮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추수하는 밭에서 일꾼이 되려는 자로서 나가서 각자의 사역을 수행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담화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담화의 문학적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언급한 예수님의 두 번째 담화입니다.

본 설교는 사도들의 위임을 요약하는 10:1-5A 이후에 시작되며, 사도들을 개별적으로 나열합니다. 이 설교는 11:1에서 마태복음 특유의 전환 공식으로 마무리되는데, 이는 마치 산상수훈이 이 공식으로 마무리된 것과 같으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입니다. 따라서 7:28과 11:1을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구조적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시는 동안, 그들이 순회 사역을 떠날 차례입니다(11:1).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사역, 메시지와 기적을 통해 왕국의 권위를 보여주셨고, 이제 그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사명을 위해 이 왕국 사역을 열두 제자에게 위임하십니다(10:1.5-8). 그들은 왕국을 선포하고 강력한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에 그 권능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확장해야 합니다. 이 장에는 설교의 배경(10:1-5a)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어서 설교의 청중과 메시지(10:5b-8), 설교에 대한 지원(10:9-15), 박해와 고난에 대한 대처(10:16-42)에 대한 지시가 이어집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 설교를 문학적 맥락에 놓았으니, 설교 자체의 문학적 구조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이프를 들으시면서 보충 자료를 살펴보고 계시길 바랍니다. 22페이지에 강의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23페이지에는 데이비스와 앨리슨이 지문 구조에 대해 어떻게 접근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내용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

이 담론의 구조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상수훈처럼 구조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산상수훈의 구조는 상당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 담론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데이비스와 앨리슨의 카이아스틱 접근법, 즉 담론을 그리스 문자 카이와 X자 형태로 구성하는 접근법은 완전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5-10절의 초기 지시 사항(선교의 대상과 메시지, 그리고 지원에 대한 몇 가지 언급) 이후에는 왕국이 받아들여질지 거부될지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대칭성을 보입니다. 이 장의 앞부분인 11-13절에는 왕국이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는 듯합니다. 합당한 집과 합당한 성읍에 대한 축복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그다음에는 거부에 대한 두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에서는 일반적인 거부에 대해 다루고, 16절부터 39절까지는 거부가 일어날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 다룹니다.

배척당하는 자들 중에는 법정, 회당, 총독, 왕, 심지어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인 자기 가족도 있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10장 16-39절의 이 긴 구절조차도 복음이 배척당하는 것에 대한 내용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이 배척당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경고 가운데, 예수님께서 배척당하는 시기에 제자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장 19절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서 말씀하실 것임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4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이 버림받았듯이 우리도 버림받는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16절에서 39절까지의 버림받음에 대한 내용은 몇 가지 구체적인 경고를 담고 있지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2절까지, 이 담화는 다시 한번 긍정적인 어조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고 차가운 물 한 잔과 같은 작은 것으로라도 그들을 돕는 자들에게 주어질 보상에 대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담화는 생각만큼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는 다소 어렵지만, 읽어보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직면하게 될 상황에 대한 매우 명확하고 냉정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담화를 읽어보면 이 담화가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 즉 제자들이 이스라엘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과 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10-23절에서 이 점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며,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야 한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담화는 주로 예수님의 초대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한 사역과 관련이 있지만, 교회 전체의 지속적인 세계 선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통치자들 앞에 서게 될 것과 심판날까지 인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10 장 18절, 22장 26절, 28절을 참고하십시오.

따라서 이 담론은 추가적인 역사와 시간을 예견하며, 따라서 오늘날 교회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현대 서구 교회가 이 담론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광범위한 박해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서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제시된 심오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 1-4절을 살펴보고, 주님께서 당신의 초대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방금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명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9장 37절과 38절에서 추수할 일꾼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사명은 그들의 기도에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궁핍한 무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구속하는 능력으로 다가가야 하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과 행함으로 친히 섬기셨던 것처럼 섬길 권세를 받습니다.

이어지는 담화에서 제자들은 그들의 운명이 예수님께 대한 충성에 필연적으로 달려 있음을 거듭거듭 상기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말씀과 행함으로 사역을 계속하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배척당하고 박해받는다면, 예수님도 배척당하고 박해받으십니다.

10:14, 18:22, 24, 25를 보십시오. 만일 그것들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는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10:40을 보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의 다른 곳에 언급된 사도들이 반드시 긍정적인 면으로 묘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유다가 바로 그 가장 좋은 예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세베대의 아들들은 다가올 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라는 어머니의 이기적인 간청에 공모합니다. 2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베드로의 약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했을 때, 그는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건축 자재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 초기 지도자들이 비록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지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모든 공로를 예수님께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이와 관련하여 한 말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나 열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인간 대리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전 사역과 부활 후 사역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19장 28절에 따르면 종말론적 이스라엘의 통치자 가 될 것입니다 . 이제 10장 5절부터 15절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지침의 개요라고 불렀던 부분입니다.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지시는 메시지의 목적지, 제자들이 행할 수 있는 기적, 그들이 가져갈 옷, 그리고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환대에 대해 다룹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은 이 목적지, 곧 이스라엘만을 다룹니다. 10장 7절의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전파합니다.

10장 8절에 언급된 기적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장을 최소한으로 하고, 동전을 많이 가지고 가지 않고, 9절에 언급된 것, 심지어 옷 두 벌도 가지고 가지 않고, 오히려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9절과 10절에서 제자들을 도울 것이라고 가정한 것.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당신을 받아들이고 돌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받아들이고 돌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제자들의 사명이 예수님과 요한의 사명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제자들이 가져가야 할 자금과 장비가 비교적 부족하다는 점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 마지막 특징은 오늘날 신자들에게 그들의 궁극적인 자원과 사역은 자신의 공급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약속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공급의 단순함은 오늘날 특정 사역에서 유행하는 모금 활동과 호화로운 장신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장 5절에서 비유대인 사역을 금지하는 것은 아마도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 금지 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선교를 명령하는 이 복음서의 최종적인 사명과는 분명히 다릅니다(28:18). 이 중요한 차이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 계획에서 이스라엘의 우선순위는 결코 간과될 수 없습니다. 마태는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제시하는데, 이는 창세기 12장 2, 3절과 비교됩니다. 아브라함의 단순한 육신적 후손만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없으며, 요한은 3장 9절과 8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근본적인 언약 백성이며, 종말론적 축복은 족장들에게 주어진 약속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8장 11절과 19장 28절 참조).

따라서 이방인 세계 선교는 이스라엘에 대한 근본적인 사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히브리 성경과 제2성전 유대교에 뿌리를 둔 그 뿌리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이방인만을 위한 종교는 물론, 이방인만을 위한 종교도 아닙니다.

10장 5절의 특수성은 예수께서 이스라엘 역사와 예언적 소망의 성취가 되시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새로 탄생한 교회의 핵심이자 기초가 되는 지도자들이 됩니다(16장 28절, 19장 28절, 21장 43절 비교).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속에서, 안타깝게도 당시와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와 지금도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의 메시아적 남은 자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우선순위를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과 바울 모두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10장 16절, 로마서 11장 16-24절, 15장 7-12절, 에베소서 2장 11-13절의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십시오.

따라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했듯이,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진실로 느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10장 16-23절에 나오는 박해에 대한 경고와 격려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16-23절에는 경고와 격려가 두 번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종교 재판소와 행정관들의 박해에 대해 경고합니다(10:16-18). 10:17에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리라"라고 기록된 것은 당시 유대인 법정, 즉 베이트 딘(Beit Din), 즉 심판의 집, 랍비 법정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들의 메시지가 유대교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문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회당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분 다 아마 유대인이셨을 겁니다. 유대교적인 환경에서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공식적인 유대교에 의해 박해를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격려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10:19과 20에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순환입니다. 두 번째 순환은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즉 자기 가족의 배신에 대해 경고합니다(10:21).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은 10장 23절에 따르면 끝까지 충실한 자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오심을 강조함으로써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10장 2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심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그럴듯한 견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10장 2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곧, 말하자면, 제자들의 사역을 이어가실 것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마치 도시들을 돌며 제자들을 따라다니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관점에서, 이 오심은 종말론적인 오심이 아니라, 단순히 제자들이 이스라엘 마을들을 향한 사역을 마치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과 다시 만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그럴듯한 견해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교회의 새 시대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예수님의 재림이 부활로 시작하여 오순절까지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원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파괴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임했던 심판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유명한 개혁파 주석가 윌리엄 헨드릭슨은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러한 관점을 취합니다. 네 번째 관점은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스라엘에 임박한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카슨과 해그너 같은 사람들은 서기 70년 로마의 예루살렘 멸망이 그리스도의 심판의 재림이라는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상에 재림하지는 않으셨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견해는 1023년에 예수께서 제자들뿐 아니라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제자들에게,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예수께서 다시 지상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 중에는 권위 있는 주석서인 데이비스와 앨리슨, 그리고 마태복음에 대한 『사크라 파기나』 시리즈에 참여한 블롬버그, 건드리, 그리고 다니엘 해링턴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견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된 마태복음의 다른 본문들, 예를 들어 16장 28절, 24장 30절, 44절, 25장 31절, 26장 64절에 대한 견해입니다.

아마도 이 모든 본문을 비교해 보면 일관된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둘째, 앞으로 올 본문들 중 적어도 일부는 다니엘 7장 13절에 근거하는데, 거기에는 인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나타나는 모습이 나와 있으므로, 그 구절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셋째,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교 담화가 12제자의 본래 선교만을 묘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부활 후 교회의 후기 선교를 예견하고 구상하는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고 저울에 달아보면, 적어도 저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제가 언급한 마지막 관점, 즉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의 초기 제자들뿐 아니라 더 넓은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며,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해석을 확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선교 담론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동안 교회의 선교를 예견하는 것이며, 그 선교에는 마태복음 28장 18-20절에 묘사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지속적인 선교가 포함됩니다.

이제 선교에 대한 담화의 다음 부분인 10장 24-3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0장 24-33절의 핵심은 제자들에게 닥칠 배척을 고려하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금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지만, 이 부분은 제자들이 박해받을 가능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제자들은 주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분보다 높지 않으며, 그분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종으로서 그들은 박해자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24-25) 이야기가 전개되고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심화되어 수난 주간에 유대인 지도자들과 다툼이 벌어지면서, 제자들은 아마도 이 가르침을 더욱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예수님의 처우에 동참했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도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26-27) 나중에 그들은 마태처럼 부활 이후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부활이 예수님을 의롭다 하셨고, 그분의 재림이 그들을 의롭다 하실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숨겨진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셋째, 제자들은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심판 날에 그들과 박해하는 자들이 모두 대답해야 할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 10:28-33) 박해하는 자들이 가하는 시련은 일시적일 뿐이지만, 박해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제자들은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 인정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박해자들은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에 의해 부인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공통된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분의 재림에 집중하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유지함으로써 두려움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현재 신학 논쟁에서 자주 인용되는데, 이는 조건부 불멸이라고도 불리는 소멸론적 개념과 전통적인 기독교의 영원한 형벌에 대한 가르침을 대립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가 관심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지만, 오늘날 흔히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10장 28절 하반절에 달려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육신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멸절론이나 조건부 불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멸하다'라는 단어, 즉 그리스어 '아폴루미'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자들이 멸망되는 최후의 심판, 즉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최후의 심판을 가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본문들을 보면 이른바 이 멸망은 온 인간을 위한 형벌의 상태임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9절, 30절, 18장 9절, 23장 15절, 33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온 인간을 위한 이 형벌의 상태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생의 축복과 마찬가지로 영원합니다.

25:41과 25:46을 비교해 보고, 이 구절의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 본문, 다니엘 12:2, 그리고 요한복음 5:29, 사도행전 24:15, 데살로니가후서 1:9, 요한계시록 14:10, 요한계시록 20:10, 20:15, 20:18과 같은 신약 성경 본문도 살펴보십시오. 지옥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은 우리를 이 문제에서 벗어나 지적 교만이라는 문제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논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신학교 교수님 중 한 분이 늘 말씀하셨듯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지 않는 한 지옥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지 않는 한 우리 모두에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요점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주제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두려운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에게 경외심과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염려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교리가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무시하거나 폄하할 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2절, 28절, 그리고 33절에 따르면, 이 교리는 박해의 시대에 충실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마태복음 10장의 동기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피해야 할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 충실해야 할 이유가 하나 줄어들고, 그분을 부인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담화의 마지막 주요 부분인 10장 34-4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오래된 관계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며, 우리가 지상의 친척들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담화는 그분과 그분의 왕국 메시지가 이 땅에 자동적으로 평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로 끝맺습니다. 사실, 가장 신성한 인간 관계조차도 그분의 메시지로 인해 단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충성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가르침은 히브리 성경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21장 17절, 레위기 20장 9절, 신명기 5장 16절과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을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4-6절, 19장 8-9절, 19절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과 구약성서는 충성과 신의,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에 대한 충성심은 가족 내에서 불화를 일으켜 가족 관계를 끊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첫 번째 충성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고, 첫 번째 가족은 믿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가족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분명 깊은 고통을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으며, 어쩌면 여러분 중 몇몇도 그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시적인 고통은 예수님과의 영원한 분리라는 공포에 비유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범은 우리의 충성심이 그분을 따르는 새로운 가족에게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2:46-50) 요한복음 7:3-9과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현세에서 잃어버린 관계의 고통이 어떻게든 미래 왕국의 축복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요한복음 19:29). 이 담화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로 끝맺습니다. 지옥과 가족의 배신 가능성에 대한 논의 이후, 긍정적인 분위기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40-42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대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상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끝맺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려면 선교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사명에 참여해야 합니다. 선교사를 지원하는 사람들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가족에게서조차 박해가 불가피하다는 엄중한 말씀에 이어, 이 결론은 제자들에게 선교 활동에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따뜻한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담화의 결론은 산상수훈의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담화 모두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직설적인 표현으로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27절에 따르면, 사람의 집은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10장 39절에 따르면, 사람은 목숨을 잃거나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거나 부인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가족과 예수님, 즉 자아실현과 제자도라고 부를 수 있는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타협점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런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만약 가족이 예수님 아니면 우리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요한다면, 제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이 담화를 잠시 생각해 보면, 서구 기독교인, 미국 시민, 적어도 저처럼 중산층의 관점에서 읽으면 그다지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서구 사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겪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이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오늘날 전 세계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심한 박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과거에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그분에 대한 증거 때문에 끔찍한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서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교회사 전체, 과거 신자들이 겪었던 고난, 그리고 오늘날에도 전 세계 신자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이 모든 것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우리의 편협한 생각에서 우리를 어느 정도 충격에서 벗어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어쩌면 우리도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견뎌낼 힘을 주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